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복 있는 사람

(시편 1:1-6)

시편 1편은 시편에 있는 모든 시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복 받는 길과 멸망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 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신학자 제롬은 “시편 1편은 시편의 입문서로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실제적인 시로서 복 받는 길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반면 복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1. 두 개의 길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 지혜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이며,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결정을 촉구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저 세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곧 죄 중에 사는 인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

본문은 3절까지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대칭법을 사용하여 본문을 3 세트로 나누어 대칭하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며 내용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세트는 세 가지로, 따라가고, 서고, 앉고, 두 번째 세트는 피, 길, 자리, 세 번째 세트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대칭시키며 인간이 죄 중에 거할 때 점점 악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간이 악한 사람의 궤에 빠지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만한 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점진적인 발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변증학자 C. S. Lewis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임재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 하며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의 길을 사랑하고 쫓아갑니다.

2. 두 길의 결과

옳고 경건한 삶을 산 이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인의 구주요 우리에게 시편 1편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쉽고 빨리 가는 길 보다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신 분입니다.

다. ‘복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가르치는 것은 상급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삶의 결과입니다.

시인은 두 길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는 ‘열매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시냇가에 심겨 거기서 양분을 공급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축복의 삶을 살게 되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 나무가 말라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타작마당은 언덕 위에 있어 항상 바람이 불니다. 알곡은 공간에 들이지만 타작마당의 겨는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악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악인에게 주어질 공허함, 무익함, 무가치한 삶을 의미하며 또한 심판을 뜻합니다.

3. 두 길의 마지막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로서 두 개의 길을 각각 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여기 어떤 길은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고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학자 Harry Ironside가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유대인과 아랍인들 앞에서 시편 1편을 읽어주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분은 악한 자와 함께 걸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신 절대적으로 무죄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는 과연 모세인가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죄를 지은 사람들로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동안 침묵이 흐른 후 한 늙은 유대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신약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인의 구주요 우리에게 시편 1편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쉽고 빨리 가는 길 보다는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시작

7월25일(월)-27일(수) 3일간

<중등부>

주제 :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장소 : 인천연수원

중고등부 2005년 여름수련회가 내일(25일, 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계속된다.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를 주제로 인천연수원에서 이중운 목사와 윤영국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고등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Change yourself, change the world"를 주제로 평택의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린다.

<고등부>

주제 : Change yourself, change the world

장소 : 진위고등학교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중등부 학생,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여름수련회 준비물은 성경찬송, 갈아입을 옷, 필기 도구 및 메모장, 그리고 은혜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이다.

파리에서 이어진 성경필사

최유현 (영년부)

안녕하십니까?

현당감사행사로 분주할 서울교회를 생각하면 멀리 떠나있는 저도 마치 함께 하는 듯 기쁘고 설렐니다.

파리에 있는 저는 매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말씀을 듣고, 교회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서울교회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필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14가지 현당감사행사에서 보고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로도 들으면서 나도 성경필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멀리 있어서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도 못하는구나 하며 서운해 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 통화중에 "유현아~너도 성경필사 할래?" 하시는 말씀에 너무 반가워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씀의 바램도 다 아시어 필사에 참여케 해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로부터 설명을 들은 저도 필사 시작 전, "하나님! 참여하는 같은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암송하길 원하는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하고는 필사를 했습니다. 다 필사된 종이를 보며 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서울교회 일당예배때의 감격이 생깁니다.

이제는 현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현당예배에 함께 하질 못할 생각을 하면 서운한 마음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회를 현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 암송필사성경 금주 중 끝마쳐

미참 성도는 30일(토) 하루만 참여 가능

교회 현당을 감사하는 14대 행사중 하나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였던 서울 암송필사 성경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금주 중에 마무리 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사위원으로, 감수위원으로, 혹은 중보 기도로 50여일을 이룬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수천장에 이르는 대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금주 토요일(30일) 하루 동안만 필사 성경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을 조정하여 평생에 다시는 하기 어려운 필사성경에 꼭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현당 감사 14대 행사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천국시민 양성 - 고등부 친구초청잔치를 마치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함께 가자!”

더듬더듬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렇게나 많았던가!

지난 주 친구초청잔치를 개최했던 고등부에 무려 140여 명이나 되는 소중한 양들이 모여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는 더 많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했다는 기쁨인 동시에 길 잃은 소중한 양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극이었다.

이날 친구초청잔치는 새로 온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행사의 서문을 열었다. 기쁨의 노래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 후에 아직 예수님과 교회가 낯설기만 한 새 친구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이들을 풀코스로 안내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고등부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고등부 소개 영상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정식 목사님의 친근하고 자상한 환영사와 재미있게 교회 틀 머리에 담아갈 수 있는 영상물, 푸짐한 간식과 함께 하는 즐거운 친교의 시간 등 주어진 시간을 쪼개

고 쪼개 써도 아까울 정도였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이번 친구초청잔치를 시작으로 불붙은 전도의 열기가 내일(25일)부터 27일까지 진위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고등부 여름수련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생을 변화시킬 커다란 기회가 될 여름수련회에 우리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이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고은실(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교육 1국 여름성경학교

"이젠 세상 문화에 젖지 않을 꺼예요."

○ ...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주제 아래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예배당 곳곳에서 열렸다.

학생과 교사 등 연인원 7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양한 시청각 교육과 함께 <기도제목쓰기> <결의문 작성>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경필사작업'에도 참여해 서울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1. 초등부

"유행에 젖어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5학년 박찬우)."

"동생과 많이 싸웠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물을 잘 돌봐주어야 하듯 제 동생도 잘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5학년 이위석)."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에 맞서서 어떻게 실천할까...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관련한 위의 질문에 대답을 쏟아내는 초등부 학생들의 표정이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말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판단으로 <영화 감상문 발표> 나 <바른 문화 생활을 위한 결의문 작성> 등 쓰기의 발표교육에 집중한 결과다.

"아침 일찍부터 학원을 가는 강남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단하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이신애 교사)."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쓴 결의문과 세상 문화에 신앙으로 맞설 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동봉해 각 학생들의 가정에 보냈다.

2. 유년부

연인원 200명이 넘는 대인원이 참석한 유년부는 새로운 친구만 20명이 넘었다.

"형 따라 서울교회 처음왔는데, 학교에서 맞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해서 재밌었어요. 이제 서울교회에 계속 나올 꺼예요(1학년 허준혁)."

생애 처음으로 성경필사를 경험한 유년부 학생들은 새삼 성경말씀에 관심이 커져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필사한 성경책의 앞표지는 어떻게 만드나요(1학년 주하린)?"

"쓰면서 틀렸을까봐 많이 걱정했어요(1학년 윤은석)..."

유년부 학생들은 특히 각자 쪽지로 만들어온 기도제목을 천장에 걸어놓고 소원이 이뤄지길 톱툰 기도했다.

"부모님 건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병 낫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오늘 성경학교가 끝나니 오늘 하나님이 답해주실 것 같아요(2학년 김보영)"

3. 유치부

유치부는 각 유치원이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아 참석 자체가 어려웠지만 아예 유치원을 빠지고 성경학교로 데려오는 열성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어릴때 다녔던 여름성경학교의 감동이 남아 있어서 아들 동재에게도 여름성경학교의 추억과 신앙의 뿌리를 남겨주고 싶어 영어유치원도 빠뜨리고 함께 나왔습니다(김미경 학부모)."

4. 유아부

유아부는 각종 동화구연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등 실력과 학부모들이 가세해 자체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성경학교를 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유아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젊은 시절 교회를 열심히 섬겨온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박금실 전도사)." 김민철(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 여름수련회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박지연 (대학부 부위원장)

2005년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7월13일(수)~16일(토)까지 철원 담터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도하는 대학부, 교회의 소망"이라는 주제 아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성경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김재진 목사님의 설교는 대학부원들에게 도전과 자각의 시간이었고, 대학부 담임 목사님이신 서명철 목사님의 전도특강은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GBS(성경공부)의 조별모임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서울교회의 전도왕인 박이선 집사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사례와 집사님의 전도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날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은 수련회에 빠



질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십-섬김"이란 주제의 말씀은 젊은이들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에 대해 목사님의 경험과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로 단합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

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기며 모인 대학부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수련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맛있는 밥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였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프로그램에 맞게 날씨를 허락하셔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미래의 리더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이번 수련회에 조금 더 권면하여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대학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김수련

1.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2.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3. 그 곳에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화용

1. 성령충만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2.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승용

1. 선교를 통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2.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3.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미영

1. 단기선교 기간동안 모든 프로그램 잘 감당하도록
2. 현지인들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정명정

1. 온전히 주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2.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이승준

1. 선교준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팀원간의 단합 및 건강
2. 겸손한 마음, 담대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이주현

1.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단기선교를 위해 준비하도록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5. 노사간의 갈등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천국시민양성

청각장애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인호 집사(에바다부 부장)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8월1일(월)부터 3일(수)까지 인천 영흥도 '꿈꾸는 사람들'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 여름수련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문화'입니다.

풍과 많은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주위를 감싸고 호시탐탐 노리는 시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 같이 "세상에 손으로 만져지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진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이 문화의 탈을 쓰고 표피적이고 일

시적인 쾌락과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시대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외국에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견져내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담대히 물리친 것을 압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각장애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에서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을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2. 선교 가운데 온전한 섬김과 겸손을 실천하도록



신은미

1. 아시아 단기선교가 서울교회의 선교 비전에 불씨가 되게 하주세요.
2. 선교 중 사단의 방해에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하주세요.



인재이

1. 준비 기간동안 선교지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길.
2. 복음을 전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길



구진영

1.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2.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 제14기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시 전도학교 14기 수료식을 갖는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선철 이남성 최용걸 안홍희 오유식 이근형 임귀순 최봉애 원혜리 김혜중 이갑연

교회단신

우리교회 교역자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상의 걸 옷을 입지 않고 목사복 착용만으로 심방 및 각종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목) 총회주제위원회를 소집한다. 29일(금) 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 독남: 7교구 윤희권 성도 김유경 성도 (박금실 전도사, 윤석호 집사 장남) 5교구 진성호 소성연 성도 (소병국 성도 심화순 권사 외손자)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남전도회 (7월24일) 모세남선교회 (7월31일)
- 금주의 식사: 백수남 집사 김영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복음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예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오시는 길

